

특수인쇄용지 및 패키징 솔루션 공급 프린벨트 설립 새로운 인쇄 환경 구축



이근성
프린벨트(주) 대표이사

록셀(Roxel)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럽 최대의 특수 라벨지 및 플렉시블 패키징 용지의 제작사로 백만톤 이상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지류 유통 회사로 아랍권에 50만톤 이상을 공급하고, 유럽에 14만톤, 아시아에 9만톤 등 백만톤 이상의 지류 유통을 통해 1조2천 이상의 매출을 이루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록셀은 국내에 공식적으로 공급 채널을 마련했는데, 바로 한국하이델베르크(주)에서의 다년간의 노하우를 쌓은 이근성 이사가 설립한 프린벨트(주)를 통해 공급하게 됐다는데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근성 프린벨트(주) 대표이사에 대해 설립 경위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인쇄기 전문 제작사인 독일 하이델베르크 한국 현지법인인 한국하이델베르크(주)에서 지난 16년동안 매엽인쇄기 프로젝트 매니저와 패키징 영업책임자로 근무해 온 이근성 대표이사(프린벨트(주)를 창업, 인쇄업계에 새로운 출사표를 던졌다.

이근성 대표이사는 최첨단 인쇄 기술을 자랑하는 독일 현지에서 7년 동안 인쇄공학 석사과정을 마친 인쇄 전문가로 하이델베르크 근무시절 국내 인쇄 산업의 발전, 선진화된 인쇄소, 기업의 이윤 구현에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번 이 대표이사는 인쇄의 전 공정을 의미하는 '프린(Prin)'에 '세계'를 뜻하는 '벨트(Welt)'를 합성, '인쇄의 세상'이라는 벽찬 의미의 프린벨트(주)를 설립해 고급상업인쇄 패키징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 및 가치를 제안하고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인쇄 환경의 개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수 인쇄 용지 및 패키징 원지의 공급, 선진화된 패키징 장

비 공급을 통해 국내 인쇄업계 발전을 이끌 생각이다.

“차별화된 제품은 물론, 매년 줄어드는 비즈니스 마진 개선을 통해 비용절감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동안의 기술적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쇄 환경을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근성 대표이사는 고객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고려한 원자재 및 장비 도입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패키지 인쇄 산업에 있어 다양한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아이템을 개발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품질의 고급화, 품질 관리의 표준화, 공정 관리의 일원화 등과 같은 합리적이며, 실용화된 시스템 구성으로 투자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프린벨트(주)는 오스트리아에 빈(Viena)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제지 및 유통회사인 록셀(Roxel)의 한국 판매 총대리점 역할을 톡톡히 할 계획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단상자용/식품용 패키징 보드(SBS, FBB 올펠프, CCP), 패키징용 및 콜게이트용 크래프트 및 라이너지, 라벨지(편아드 라벨지 및 소주 맥주용 wetstrength 라벨지), 기능성 특수지(티백, 식품용지, 유상지, flexible packaging용 용지, 금은 증착 보드 및 증착지), 고급 상업 인쇄용 백상지(woodfree), 복사지 등이다.

그동안 이근성 대표이사는 독일에서 공부한 인쇄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선진 인쇄 기술을 다양한 인쇄 매체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국내 인쇄 산업이 글로벌 시대에 강한 경쟁력을 갖도록 기술 지원을 해 왔다. 평소, 긍정적 사고(Positive thinking), 열정(Passion), 숭선수범(Preactivity), 전문성(Professionalism)의 “4P”를 생활 신조로 삼고 있다는 이근성 대표이사. 그동안 국제적 경쟁력 실현을 위한 최첨단 인쇄기의 소개를 위해 선진 인쇄소들의 다양한 실례를 소개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장비를 소개함으로써 인쇄공정의 자동화 및 통합, 인쇄물의 높은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그가 프린벨트(주) 안에서 인쇄 업계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기대해 본다. 

록셀(Roxel) 그룹은 세계 3위의 지류 유통자회사인 RMG, IT 회사인 ABAX, 운송회사인 MIRA, 라벨 생산 세계 규모의 오스트리아 위치한 Brigl&Bergmeister 제지 생산 공장과 슬로베니아에 위치한 Papirnica 제지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특수 용지는 연간 15만톤이 넘고 있다. 세계 최대 지류회사인 RMG는 105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3년 록셀그룹에서 인수한 이후 연간 1백만 톤 이상 펄프 및 용지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용지회사로 급성장하였다.

특히 내수성 라벨 용지는 세계 최대의 생산과 공급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에 공급되고 있는 처음처럼, 카스 맥주 라벨 등이 그 대표적인 제품 Wet strength label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주류제조사(InBev, SAB Miller, Anheuser Busch, Heineken, Carlsberg, Tsintao, Radeberger 등) 라벨의 80% 이상이 B&B사의 생산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록셀그룹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140여명의 직원 지역별 15개 영업지역으로 나누어져 전세계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각 나라별 맞춤형 용지를 가장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100여명이 근무하는 각 29개국에 현지 사무실에서도 신속한 정보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